

풍력 에너지의 미래를 만나다

2011 스페인 사라고사 윈드 파워 엑스포

스페인에서 차를 타고 사라고사를 향하다 보면 사라고사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는 표식은, 도로 표지판이 아닌 수백 개의 풍력발전기의 모습일 것이다. 바람의 고장 사라고사에서 2011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에 걸쳐 풍력발전기술박람회인 사라고사 윈드 파워 엑스포가 개최되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스페인 풍력관련 기업들이라면 꼭 방문하는, 인지도가 높은 전시회이다. 올 해로 8회 차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는 이전에 비해 그 규모가 11% 증가하였으며 독일, 덴마크 등 유럽 다수 국가들과 미국 등 23개국 239개의 업체가 참여해 국제적 행사로서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졌다. 또한 풍력발전관련 업체 뿐만 아니라 Solar Power Expo, Exporecicla, Power Expo라는 이름으로 소수이지만 태양열, 태양광 발전업체 및 각종 환경관련업체들도 참여함으로써 종합적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라는 느낌도 들게 하였다.

풍력 발전 전문기업 사이에서 한국기업 홍보

덴마크의 Vestas, 스페인의 Gamesa, Acciona, 독일의 Enercon 등 세계 굴지의 친환경 풍력산업 기업이 다수 참여했던 이번 전시회에서 KOTRA는 한국의 풍력발전 산업의 발전 현황과 가능성, 한국 풍력산업으로의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홍보 일정을 수행하였다. 전시 부스를 통한 홍보 외에 9월 28일 오전에는 한국 풍력산업에 관심 있는 해외 기업들을 초청하여 한국 풍력산업 현황 및 가능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잠재적 바이어 및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설명을 제공해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설명회에는 Acciona, Alstom, Enercon 등 주요 기업들이 참가했으며, 주요 해상 프로젝트에 다수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개별 상담도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거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보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KOTRA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유일한 아시아 부스였고 이름도 그들에게 약간 생소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부스에 방문해 상담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부스 방문객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풍력발전 관련 안내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고, 풍력산업에 관한 문의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 문화라든지 한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너 등을 문의하는 업체도 다수여서 비즈니스 문화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기술 교류의 장이 펼쳐지다

3일 간의 전시 일정 내내 전시장 옆 세미나 룸에서는 각종 설명회 및 세미나가 진

스페인 기업 Acciona



출처 : 마드리드 무역관

Kotra 전시 부스 모습



출처 : 마드리드 무역관

행되었다. 스페인 기업 Gamesa의 고효율의 에너지 보존을 위한 신전략 등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과 풍력 발전단지의 효율적 유지 보수, 풍력발전의 기회와 가능성에 관한 세미나 등이 진행되었으며, 기어박스, 발전기, 블레이드 등 각종 부품들에 대한 실무 워크샵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전시장에 여러 기업들이 회사와 제품 홍보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전시 기간 내내 활발한 기업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발전

유럽의 대표적 풍력발전전시회답게 많은 업체들이 각 부스에서 그들의 기술과 모델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주목받았던 기업은 프랑스의 풍력발전기업 Alstom이었다. Alstom은 이번 전시회에서 적은 양의 바람으로도 기존 터빈보다 최대 25%까지 전기를 더 생산해낼 수 있는 풍력 터빈 개발 기술을 선보였다. 2.7MW의 Eco 122모델은 1년의 42%인 3600시간동안 내내 100%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로 2013년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 더 적은 발전기로도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므로 풍력발전단지 건설비용도 최대 15%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Alstom 측은 전했다.

프랑스 Alstom 과 독일 E.on



덴마크 기업 Vestas



출처 : 마드리드 무역관

풍력터빈 업계 1위의 덴마크 기업 Vestas 또한 이미 기존에 검증된 바 있는 3.0MW의 V90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2.6MW의 신형 풍력터빈 V100을 소개하면서 전시회 기간 내내 주목을 받았다.

또 독일 기업 E.on은 육지에서의 풍력발전 기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Orkney에 설치한 파도의 힘을 전기로 변환하는 P2 Pelamis 프로젝트를 같은 해안가에서 조수 간만의 차나 파도의 힘을 이용한 조력 및 파력 프로젝트를 이번 전시회에서 함께 소개하면서 선도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풍력 부품, 설비 외에 유지 보수 기업도 다수 참가

눈에 띄는 신예 기업들의 참가도 이어졌다. 2009년에 설립된 Sincro Mecánica는 풍력터빈 유지 보수 전문 기술을 소개하며 이번 윈드 파워 엑스포에 참여하였는데 종합적인 유지 보수 서비스 제공으로 주목 받았다.

또 다른 기업으로는 2005년에 설립된 As Somozas Huso29 Renovables가 있었다. 이 기업은 각종 건축, 토목 공학, 엔지니어링 등의 사업과 함께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의 건축,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세를 넓혀가고 있으며 이미 15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올해 매출은 1600만 유로 정도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라 밝혔다. 이와 같이 풍력터빈 및 풍력발전소 유지 보수 기업들도 다수 전시회에 참가했다.

3일간 8천명 이상의 내방객들이 찾아 성황리에 마무리 된 2011 사라고사 윈드 파워 엑스포는 각 기업들 간의 기술 교류 및 비즈니스의 장이자 풍력 산업의 현주소 및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독일 HUSUM Wind Energy와 더불어 유럽 내 2대 풍력 전문전시회로 자리 잡고 있는 사라고사 윈드 파워 엑스포는 풍력 강국 스페인에서 주요 전시회로 계속 자리 잡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 